

派生接辭 ‘-이’의 意味成分 分析

崔 尙 鎭

(慶熙大 教授)

要約 및 抄錄

이 論文은 派生語 意味形成에서 派生接辭 ‘-이’의 語彙的 意味를 살펴보고, 그 意味領域과 意味資質은 어떻게 分析될 수 있는가를 考察한 것이다.

派生接辭 ‘-이’는 動詞 語幹에 접미되어 [+有情性]을 지닌 人物, 動物 또는 [-有情性]을 지닌 事物 등의 의미가 添加되어 特定한 個體를 지닌 實體名詞를 派生시킨다. ‘-이’는 語基 혹은 文장의 意味構成要素로서의 결합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意味領域을 가지게 된다. 派生어 의미는 1차적으로는 語基와 接辭의 相補的인 意味的 共起關係로 이루어지고, 派生語가 文장의 構成要素로 參與하면 2차적으로 文章構成素와의 相互間 有機體的 自己組織(self-organiz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派生접사 ‘-이’의 意味資質은 內包的 意味資質과 外延的 意味資質로 나누어 分析될 수 있다. 內包的 意味資質은 意味領域을 考慮하여 分析될 수 있으며, 外延的 의미자질은 派生어가 文章 속 構成要素로 쓰이고 있을 때 分析이 가능하다.

※ 核心語 : 派生接辭, 語彙的 意味, 意味資質, 文章意味構成要素, 自己組織, 內包

I. 序 論

이 論文은 派生語 意味形成에서 派生接辭 ‘-이’의 語彙的 意味를 살펴보고, 그 意味領域과 意味資質은 어떻게 分析될 수 있는가를 考察한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派生接辭 ‘-이’¹⁾는 動詞나 形容詞의 語幹과 結合하여 명사를 派生시키거나, 合成名詞와 結合하여 새로운 명사를 派生시키기도 하

1) 이하 ‘-이’로 指稱함.

고, 人名, 動植物名 혹은 擬聲·擬態語와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킨다. 이 밖에도 ‘-이’는 동사나 혹은 副詞를 파생시키는 形態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는 파생어 형성에서 多樣的 意味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의 의미는 文法的 意味와 語彙的 意味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이 論文에서는 ‘-이’의 어휘적 의미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이’가 형태론적으로 自立할 수 없는 접미사이지만 語基와 결합하여 파생어 의미형성에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이’와 결합한 파생어를 대상으로 ‘-이’의 內部 世界를 成分分析的 方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意味成分 分析은 단어 의미의 內부를 意味成分이라는 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방법이다.²⁾ 일반적으로 성분분석은 비교적 단어의 내부구조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單語³⁾에 限定되어 있다고 보아 ‘-이’가 형태소의 性格상 성분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疑問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동사를 명사로 전성시키는 문법적 파생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特定한 個體를 지닌 실체명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휘적 意味機能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實體名詞는 대체로 成分分析이 가능한 部類인 만큼 파생접사의 어휘적 의미의 實體를 밝히는 데도 매우 有用할 것으로 본다.

파생어 형성에 관한 연구는 形態論的 側面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어휘의미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깊이 있는 論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파생어의 형태론적 형성은 비교적 일정한 構造와 規則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파생어의 의미형성은 정해진 틀에 의해 분석될 수 없는 限界가 있어 相對的으로 파생접사의 어휘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문법적 의미 분석에 비해 그 研究成果가 微微하다. 이 論文에서는 ‘-이’의 문법적 의미는 論外로 하고 어휘적 의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파생어 의미형성을 어휘의미론적 觀點에서 볼 때, 일정한 單語의 語基에 파생접사 ‘-이’가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어를 생산하게 되면, 단어의 품사가 바뀌면서 意味領域과 意味資質도 바뀌게 된다. 예컨대, 동사 ‘먹다’의 어간에 ‘-이’가 結合하여 명사 ‘먹이’가 파생되었다면, ‘먹다’와 ‘먹이’의 意味領域과 意味資質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형태적·의미적으로 有緣性을 지닌 동사와

2) 이 논문에서는 意味領域도 意味資質과 함께 成分分析 方法에 包含시키고자 한다.

3)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p.75.

명사이지만 각각 동사와 명사로서의 의미영역과 의미자질에서 그 意味的 質量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파생어 語彙 生成에 있어서 파생접사는 파생어의 의미영역과 의미자질을 다르게 해 주는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생접사의 의미성분 문제를 좀 더 세밀히 觀察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가 語基⁴⁾와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여기서는 實體名詞를 主 對象으로 하고자 한다. ‘-이’가 實體名詞만을 파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때로 狀態名詞나 抽象名詞 등도 파생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명사류에 대한 분석은 뒤로 미루고 한다. 物理的 實體를 가지고 있지 않은 抽象名詞나 狀態名詞 등의 의미성분 분석은 단어의 성격상 단어의 내부구조에 대한 더 많은 論議를 거친 후에야 可能하므로 物理的 實體를 알 수 있고 內包와 外延 개념을 가지고 있는 파생 실체명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派生接辭 ‘-이’의 어휘적 의미

派生接辭가 어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既存 論議를 살펴보면 대체로 派生接辭가 의미를 添加시켜 주는 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語彙的 意味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⁵⁾ ‘-이’는 動詞나 形容詞의 語幹으로부터 명사를 파생시키는데, 動詞에 접미되어 명사를 파생시킬 때 대개 일정의 개체를 지닌 파생 實體名詞가 생산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예컨대

- (1) 가. 먹이, 구이, 더듬이, 다듬이 등
나. 절름발이, 툇툇이, 멍청이 등
다. 목걸이, 손톱깎이, 책꽂이 등
라. 젓먹이, 총잡이, 때밀이 등

(1가)는 單一動詞에 ‘-이’가 접미되어 특정한 事物을 指稱하는 의미를 지닌 名詞로 바뀌고 (1나)는 特定한 行爲나 部位를 나타내는 동사에 ‘-이’가 접미

4) 語基는 語幹과 語根을 모두 포함하는 用語.

5) 宋喆儀(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國語學會, p.86 참조.

되어 특정한 人物을 지칭하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바뀐다. (1다)는 ‘N+V+ -이’ 구조로 된 파생어인데 특정한 事物을 지칭하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바뀐다. (1라)는 (1다)와 같은 구조로 된 파생어로서 특정한 人物을 나타내는 동사로 바뀐다. 이와 같이 ‘-이’는 동사어간에 접미되어 人物이나 動物 혹은 事物 등의 실체명사를 파생시킨다.⁶⁾ 동사는 움직이는 行爲나 事件을 일으키는 動作主를 지닌다. 이때 동사의 動作主는 [+有情性]만 가능하며 [-有情性]을 가질 수 없다.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되면서 실체명사가 생산되는 것은 動作主가 [+有情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가. 멍멍이, 땡땡이, 꿀꿀이, 야옹이 등
나. 똥똥이, 얼룩이, 바둑이, 깜박이 등

(2가)는 動物의 소리에 ‘-이’가 접미되어 특정한 動物을 지칭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바뀐다. (2나)는 사람이나 動物 혹은 事物의 모양이나 움직임에 ‘-이’가 접미되어 특정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물을 지칭하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바뀐다. 語基가 일정한 個體를 표현하는 擬聲語, 擬態語에 ‘-이’가 접미되어 특정한 個體를 지칭하는 실체명사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는 動詞를 名詞로 轉成시키면서 ‘人物’, ‘動物’, ‘事物’ 등의 개체의 의미를 添加해주는 語彙的 意味를 지닌다.⁷⁾

한편 口語에서 ‘이’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3) 가. “이가 왜 그러시나요.”
나. “그가 내게로 왔다.”
다. “저가 우리 선생님이시다.”
라. “저기서 말하는 이는 누구냐.”

6) 宋喆儀(1992), 앞의 책, p.134. ‘-이’를 ‘-이₁’, ‘-이₂’, ‘-이₃’로 나누고 ‘-이₃’에 의한 파생어들은 유정명사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아, ‘-이₃’를 유정명사화소라 했다.

7) 形容詞語幹에 ‘-이’가 접미되면 實體名詞로 파생되지 않는다. 형용사는 모양이나 狀態를 나타내므로 動作主가 없다. 형용사어간에 접미된 ‘-이’는 어휘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보겠다.

(3)의 예에서 단어 ‘이’는 ‘사람’을 높여서 指稱하는 명사이다. 국어 文語體에서 단어 ‘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기에는 단어 自體가 形態적으로 不安定하므로 점차 接辭 形態로 바뀌게 되면서 그 機能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중에는 ‘놀이’, ‘살이’, ‘풀이’, ‘벌이’ 등은 동작주가 [+有情性]을 지니고 있지만, ‘-이’는 개체를 지닌 실체의 의미를 첨가해 주는 實體名詞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주의 행위나 사건의 의미를 첨가해 주는 行爲名詞를 생산한다. 즉, ‘-이’는 實體 派生名詞뿐만 아니라 行爲 派生名詞를 생산하기도 한다.

(4) 가. 먹다 - 먹이 / 굶다 - 구이
나. 놀다 - 놀이 / 풀다 - 풀이

(4가)는 動作主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個體의 直觀的인 外延的 對象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 (4나)는 동작주가 개체의 외연을 알 수 없는 막연한 觀念的 對象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實體名詞가 만들어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行爲名詞가 생산된다.

‘먹다’는 ‘먹는 動作과 行爲’를 의미하는 동사다. 앞서 言及했듯이 먹는 動作과 行爲를 할 수 있는 것은 [+有情性]을 지닌 동작주이다. ‘-이’가 접미되면 [-有情性]을 지닌 사물을 지칭하는 파생명사가 생산된다.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는 [-有情性]을 지닌 것으로 [+有情性]을 지닐 수 없다. 그런데 ‘N+V+-이’의 ‘젓먹이’는 ‘젓을 먹는 어린 아이’로 이때 ‘-이’는 [+有情性]을 가진 의미로 바뀐다. 이는 ‘-이’가 先行 名詞에 影響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5) 가. 먹다 행위 [+有情性]
나. 먹이 사물 [-有情性]
다. 젓먹이 인물 [+有情性]
라. 소먹이 사물 [-有情性]

그런데 (5다)의 ‘젓먹이’가 文章에서 쓰일 때의 예를 보자.

- (6) 가. 이 아기는 젓먹이다. [+有情性] 人物
나. 이 개는 아직 젓먹이다. [+有情性] 動物

(6)의 문장에서 같은 ‘젓먹이’라도 문장에서 쓰일 때 ‘-이’의 語彙的 意味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派生接辭도 문장 속의 다른 意味構成要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먹다 -이 먹이
 [+有情性] [+有情性] [+有情性] 젓먹이(사람) 人物
 [+有情性] [-有情性] [-有情性] 소먹이 事物
 [+有情性] [+有情性] [+有情性] 젓먹이(소) 動物

實體 派生名詞를 生産하는 ‘-이’와 語基와의 意味關係는 세 가지 類型으로 성립된다.

- (8) 가. *육먹이(cf. 육쟁이)
 나. *겁먹이(cf. 겁쟁이)
 다. *공부이(cf. ?공부쟁이)

(8)의 예는 국어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이’의 어휘적 의미가 ‘육’이나 ‘겁’과 같은 抽象名詞와 결합할 수 없는 意味的 制約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抽象性]을 갖는 接頭名詞 때문에 (7)‘먹이’처럼 ‘-이’와의 意味 結合關係가 성립되지 않는다.⁸⁾ 그러나 ‘육쟁이’, ‘겁쟁이’는 성립되는데 ‘육쟁이’, ‘겁쟁이’는 合成語로서 ‘-이’를 접사로 分離할 수 없다. ‘-쟁이’ 자체

8)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육먹이, *겁먹이’의 불가능성에 대해 ‘-의’의 의미가 [+有情性]을 가질 때 이와 결합하는 선행어는 [-被動性](=[+能動性])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떠한 의견을 주셨다. 즉, ‘육+먹-’, ‘겁+먹-’이 의미적으로 피동적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 매력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공부이’의 경우 [-被動性]임에도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抽象性]이라는 의미 제약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이다.

- (9) 가. 총잡이
- 나. 칼잡이
- 다. 길잡이
- 라. 왼손잡이

(9)의 ‘잡이’류 파생명사 ‘총잡이’, ‘칼잡이’, ‘길잡이’ ‘왼손잡이’ 등은 여기와 접사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의미 외에도 각각 ‘총을 잘 쏘는 사람’, ‘백정’, ‘안 내자’, ‘좌익’ 등 意味의 特殊化⁹⁾가 이루어지며 의미의 重義性을 가지고 있다. 이광호(2008)에서는 파생어의 의미형성에 첫째, 여기와 접사의 意味 合으로 全體意味를 구성하는 경우 둘째, 여기와 접사의 의미와 無關하지 않지만 그 의미의 합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 셋째, 앞서의 2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多義語로서의 파생어도 존재한다¹⁰⁾고 했다. 이광호(2008)는 한 접사가 만든 파생어가 個別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系列體를 형성하면서 複合的인 關係網 안에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존재한다고 보고, 社會文化的 배경과 결합한 命名的 욕구가 단어 형성에 動因이 있다¹¹⁾고 했다. 이러한 意味의 特殊化¹²⁾는 어휘의미론적인 설명으로 解釋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談話論的인 설명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의미의 特殊化는 문장 혹은 談話 구성간의 文脈 사이 혹은 全體的 脈絡의 흐름 관계를 살펴 그 動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10) 가. 이 사람은 고기잡이다. / 이 배는 고기잡이 배다.
- 나. 이 곤충은 하루살이다. / 저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을 산다.

(10) ‘-이’의 의미는 문장 속 의미구성요소와의 共起關係를 통해서 固定的이지 않고 流動的이다. (10가)의 ‘-이’는 ‘인물’과 ‘사물’, (10나)는 ‘동물’과

9) 宋喆儀(1992), 앞의 책, p.130.

10) 이광호(2008), 「파생어와 그 의미의 도출」, <형태론> 10권 1호, p.40.

11) 이광호(2008), p.39.

12) 구본관(2002)은 ‘意味漂流’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위’의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파생어라도 파생어가 문장 속의 의미구성요소로 參與하여 文脈상의 표현에 따라서 ‘-이’의 어휘적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생접사의 어휘적 의미는 파생어 의미형성에서 語基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가 형태상으로 接辭이지만 의미적으로는 單一語와 같은 語彙意味論的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파생어 형성에서 派生接辭를 형태론적으로 語彙核으로 보고 분석해 왔다.¹⁴⁾ 反面에 어휘의미론적으로 파생어의 의미는 語基를 意味核으로 보고 파생접사를 딸림의미로 보아 왔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파생어 의미형성에 있어서 접사를 포함한 파생어의 의미구성요소들이 서로 핵과 딸림의 階層的 意味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相補的인 有機體的 構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¹⁵⁾ 여기와 접사 ‘-이’의 의미관계는 語根과 接辭의 階層的 意味關係가 아니라 여기와 접사의 平面的 意味關係로 살필 수 있다. 파생어의 의미형성은 1차적으로 파생어를 구성하는 의미구성요소들이 서로 相補的으로 有機體的 意味關係를 맺으며 의미를 형성한다.¹⁶⁾ 즉, 파생어 속의 의미구성요소들이 서로 홀론(holon¹⁷⁾적 관계를 맺으며 部分意味를 통합하여 全體意味를 형성한다고 본다. 파생어를 구성하는 의미구성요소들은 부분이자 곧 전체로서 의미적으로 共起한다. 어기나 접사가 홀로 獨立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전체이지만, 이들이 파생

13) 高永根(1974), 『國語接尾辭의 研究』, 光文社, p.8.

14) William(1981)의 Right Hand Rules.

15) 구본관(2002)은 파생어의 형성은 구성 요소의 의미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파생보다는 합성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보고 합성에서는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가 거의 대등하게 참여하거나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는 것을 생각된다고 했다. 앞의 논문, p.110.

16) 語基와 接辭 간의 有機的 意味結合 樣相에 대해서는 김진해(1997)에서도 엿보인다. 김진해(1997:86~105)에서는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접사에 결합하는 語基의 의미가 基本意味(원형의미)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단어 형성 과정에 이미 語基의 多義的 意味(周邊意味)와 接辭가 의미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7) ‘홀론’은 그리스어인 홀로스(holos, 전체)와 온(on, 부분, 입자)을 합쳐서 만든 新造語이다. 홀론이라는 말은 部分이면서 동시에 全體라는 뜻이다.

어를 형성하는 의미구성요소로 참여하게 되면 파생어 의미형성의 부분이 된다. 部分이 결합하여 全體가 이루어질 때는 새로운 성질의 形體가 만들어지고 부분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성질은 사라져 버린다. 파생어가 홀로 독립해 있을 때는 파생어 전체로서의 性質이 강하지만 부분으로 파생어 의미로 예측되면 全體로서의 概念은 없어지고 部分으로서의 특징만 남는다. 部分은 항상 全體를 意識하고 있어야 한다. 그 전체의 調和에 맞추어 자신을 隸屬시켜 가야 한다. 그래야 自己組織 self-organization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파생어에서 自己組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미구성요소들 간에 원활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한 생명체의 낱알 세포가 생명체 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有機體的 關係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相互間의 情報交換이 필수적인 것이다. 파생어를 구성하는 모든 의미구성요소도 같은 의미정보를 공유하고 자기조직이 되어 있다.

앞의 (10)의 예에서 파생어가 文章構成要素로서 참여하면 파생접사의 어휘적 의미가 轉成된다. ‘-이’의 어휘적 의미는 접사 내부 속에 未分化的으로 가지고 있다가 語基와 결합하면서 1차적으로 그 어휘적 의미를 얻고, 2차적으로 파생어가 문장 속의 의미구성요소로 참여하면서 그 어휘적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다. 既存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¹⁸⁾ 파생접사의 의미를 基本意味를 중심으로 다른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기도 하는 것¹⁹⁾으로 보고 있다. 사전에서도 ‘-이’ 접미사를 登載하고 2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多義的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기와의 의미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2차적으로 문장의 意味構成要素와의 의미관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생어 의미형성은 1차적인 自己組織에 그치지 않고 2차적인 자기조직으로 의미를 형성한다. 파생어는 문장 속의 의미구성요소이다. 하나의 文章意味는 두 개 이상의 單語意味로 구성된다. 개개의 파생어는 의미적으로 自律性을 가진 獨立된 個別 意味單位이지만 문장에서는 文脈의 쓰임²⁰⁾에 따

18)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國語學> 39, p.117.

19) 조일규(1993), 「국어이름씨 뒷가지의 변천 연구」, 東亞大 博士論文, pp.70~74.

20) D. A. Cruse(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임지

라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意味構成要素 semantic constituent²¹⁾이다. 문장의 의미를 全體意味라고 한다면 의미구성요소는 部分意味로 살필 수 있다. 하나의 독립된 단어는 多數의 의미를 가지지만 의미구성요소는 전체에 의한 부분의 의미만을 가진다. 하나의 전체의미는 부분의미와 부분의미, 부분의미와 전체의미의 意味的 共起關係를 통해서 이루어진다.²²⁾ 단어의미가 문장 속의 의미구성요소가 되면 자신의 自律性を 버리고 전체의미라는 커다란 意味秩序에 포함되어 부분의미끼리 서로 緊密한 意味情報를 相補的으로 共有하면서 전체의미를 이룬다.

Ⅲ. 派生接辭 ‘-이’의 意味領域

앞서 ‘-이’가 ‘人物’, ‘動物’, ‘事物’의 의미를 添加하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意味領域的 觀點에서 보다 精密하게 살필 수 있다. Nida(1975)는 의미영역을 정의하여 일정한 의미성분들을 共有한 意味集合으로 보고 모든 單語의 意味領域 semantic domain을 {實體},{事件},{抽象},{關係}²³⁾ 등 4가지 部類²⁴⁾로 나눌 수 있음을 例示했다. 의미영역은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內部的 屬性을 알 수 있는 意味機能을 가지고 있다. 파생어 역시 하나의 獨立된 단어이므로 ‘-이’ 파생어도 Nida의 4가지 意味領域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가. 먹이 / 구이 등 {實體}

룡·윤희수 역(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출판부, p.21. ‘단어의 의미는 그것의 문맥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21) 意味構成要素는 意味構成成分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論文에서는 文章意味를 構成하는 單語意味를 지시하는 用語로 活用한다.

22) D. A. Cruse(1986), 앞의 책, p.103. “각각의 무한수의 문맥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통일된 전체를 구성한다.”는 언급 및 p.124. “한 문장 내의 모든 단어는 다른 모든 단어와 또한 인접한 문장들 내의 단어들과도 의미적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언급 참고.

23) 편의상 意味領域을 나타내는 기호를 {}로 하고자 한다.

24) E. A. Nid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Cambridge Univ. Press, 조항범 역(1991),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p.183 참조.

- 나. 놀이 / 물이 등 {事件}
 다. 풀이 / 깊이 등 {抽象}
 라. 굳이 / 가까이 등 {關係}

(11가)는 동사에 ‘-이’가 결합하여 {實體}의 의미영역을 지닌 파생명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11나)는 동사에 ‘-이’가 결합하여 {事件}의 의미영역을 지닌 파생명사를, (11다)는 역시 동사에 ‘-이’가 결합하여 {抽象}의 의미영역을 지닌 파생명사를 생산하고 있다. (11라)는 형용사에 ‘-이’가 결합하여 {關係}의 의미영역을 지닌 派生副詞를 생산하고 있다. (11)은 동사 ‘먹다’, ‘놀다’, ‘풀다’ 등에서 파생된 것으로 動詞 語基의 의미영역은 {事件}으로 同一하지만, ‘-이’가 붙어 각각 그 意味領域이 {實體}, {事件}, {抽象} 등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가 動詞를 名詞로 轉成시키는 구실뿐만 아니라, 그 意味領域도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意味機能²⁵⁾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의미영역은 生産性이 적은 單一形態素 동사어간을 어기로 하는 경우 보다 비교적 생산성이 많은 ‘N+V+-이’²⁶⁾의 형태에서도 多樣하게 나타난다.

- (12) 가. 하루살다 - 하루살이 {實體}
 나. 배앓다 - 배앓이 {事件}
 다. 물갈다 - 물갈이 {抽象}

(12)의 동사 ‘살-’, ‘앓-’, ‘-갈-’의 의미영역은 ‘事件’으로 같다. 그런데 ‘-이’가 결합하여 (12가)의 파생명사 의미영역은 {實體}이고, (12나)는 {事件}이며, (12다)는 {抽象}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잡이’류의 파생명사의 예를 살펴보면,

- (13) 가. 손잡다 - 손잡이 {實體}
 나. 고기잡다 - 고기잡이 {實體} / {事件}

25) 語基와 결합한 접사는 단어 전체의 의미 속의 한 部分이 아니라 全體이자 곧 부분의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派生接辭는 하나의 형태소지만 파생접사의 의미영역을 단어의 의미영역과 同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26) 宋喆儀(1992), 앞의 책, p.127.

다. 길잡다 - 길잡이 {實體} / {事件} / {抽象}

(13)은 ‘-잡이’ 파생접사가 결합한 것인데, (13가)는 {實體}, (13나)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고기잡은 사람’을 지칭하는 {實體}의 의미영역을 지닐 수도 있고, ‘고기잡는 행위’를 지칭하면 {事件}의 의미영역을 지닐 수 있다. (13다)는 ‘안내자’로서 해석되면 {실체}, ‘길을 찾는 행위’로 본다면 {事件}, ‘앞날을 밝히는 역할’로 해석되면 {抽象}의 의미영역을 지닌다.

(14) 가. 이 사람은 우리를 인솔할 길잡이다. {實體}

나. 이 지도는 우리의 길잡이다. {事件}

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다. {抽象}

(14)의 ‘길잡이’는 문장 속에서 다른 構成要素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그 의미영역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파생접사가 語基뿐만 아니라 문장의 構成要素 속에서 그 의미영역을 다르게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체가 의미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기의 결합 혹은 문장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적 역할을 통해서 이의 潛在的 意味機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論文에서 論議하고자 하는 實體名詞의 意味領域을 살펴보자. 실체명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物質的 形質을 가지고 있다. 실체명사의 의미영역 분류는 物質的 形體가 어떤 個體的 性質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분류한다.

Nida(1975)는 實體 領域을 無生物, 生物, 建造物 등 實體나 對象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했으며 Lyons(1977)는 實體를 제1 실체, 제2 실체, 제3 실체로 나누고 제1 실체를 사람, 동물, 물건으로 분류하였다.²⁷⁾ 일반적으로 실체명사는 人物과 事物을 지시하는 명사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사물은 다시 空間物과 個體物로 나누고 個體物은 有情物과 無情物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⁸⁾ 즉 ‘사람,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이순신,

27) J. Lyons(1977),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pp.442~443.

28) 최경봉(1996), 「명사의 의미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 4, p.23. 최경봉은

홍길동’ 등은 人物을 지시하는 실체명사이며 ‘산, 바다, 몸, 손, 발, 백두산, 서울’ 등은 사물 중 空間物을 지시하는 실체명사이고 ‘개, 호랑이, 사자, 메리, 백구’ 등은 개체를 지시하는 有情物 實體名詞, ‘나무, 돌, 풀, 물’ 등은 개체를 지시하는 無情物 實體名詞로 분류한다. 실체명사는 물리적 개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므로 加算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체명사의 의미영역별 분류를 基準으로 ‘-이’의 의미영역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 ‘-이’가 單一語 動詞의 語幹과 결합하여 실체명사가 파생될 때의 의미영역이다.

(15) 가. 먹다 - 먹이 / 더듬다 - 더듬이 / 굽다 - 구이 / 흔들다 - 흔들이
나. 까불다 - 까불이

(15가)의 실체명사는 ‘-이’가 {事物}{個體物}{無情物}의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단일어 동사에 ‘-이’가 붙어 실체명사를 파생시킨 파생어는 주로 ‘-이’가 {事物}{個體物}{無情物}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5나)는 동사 ‘까불다’에 ‘-이’가 결합하여 ‘까불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는 {人物}{有情物}의 의미영역을 지닌다.

둘째, ‘어근+동사어간+-이’의 非統辭的 合成 形態의 실체명사가 파생될 때의 ‘-이’의 의미영역이다.

(16) 가. 여닫이 / 미닫이
나. 떠돌이

(16가)의 ‘-이’의 의미영역은 {事物}{個體物}{無情物}를 나타내기도 하고 {事件}의 의미영역을 지니기도 한다. 반면 (16나)의 ‘-이’는 {人物}{有情物}의 의미영역을 가진다. 현대국어에서 이러한 파생 실체명사의 生産力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²⁹⁾

다시 이 분류를 內包指示와 外延指示를 도입하여 詳別하고 있다.

29) 宋喆儀(1992), 앞의 책, p.128.

셋째, <명사+동사어간+-이>의 統辭的 合成 形態의 실체명사가 파생될 때의 의미영역이다. 이러한 형태의 실체명사의 生産力은 국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³⁰⁾

- (17) 가. 젓먹이 / 구두땀이 류
나. 소금구이 / 갈치구이 류

(17가)의 ‘-이’는 {人物}{有情物}을 지시하는 의미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17나)의 ‘-이’는 {事物}{個體物}{無情物}의 의미영역을 지닌다.

넷째, ‘-이’가 人名이나 동식물명, 혹은 의성 의태어에 결합하여 실체명사가 파생될 때의 의미영역이다.

- (18) 가. 복순이 / 차돌이 / 점순이 류
나. 멍멍이 / 야옹이 / 꿀꿀이 류
다. 애꾸눈이 / 절름발이 / 똥똥이 류

(18가)의 ‘-이’는 固有 人名名詞에 결합하여 {人物}{有情物}의 의미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18나)의 ‘-이’는 동물 의성어에 결합하여 {事物}{個體物}{有情物}의 의미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18다)의 ‘-이’는 사람의 外樣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人物}{有情物}의 의미영역을 지닌다.

- (19) 가. 말-더듬이
나. 재-떨이

(19가)의 ‘더듬이’는 {事物}{有情物}이지만 ‘말’이라는 명사가 접두되어 {人物}{有情物}의 의미영역으로 轉移된다. (19나)는 {事件}의 의미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명사 ‘재’가 접두되어 {事物}{無情物}의 의미영역으로 轉移된다. 이것은 ‘-이’가 전접된 어기와의 의미적 공기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19가)의 ‘말’은 ‘사람의 행위’이므로 [+有情性]을 가지고 있

30) 宋喆儀(1992), 앞의 책, p.127.

고, ‘재’는 [-有情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影響으로 ‘이’의 의미영역이 다르게 보인다.

(20) 가. 굶다 - 구이

나. 구이 - 생선구이 / 소금구이

다. *사람구이 / *하늘구이

(20가) ‘-이’의 의미영역은 {事物}{個體物}{無情物}이다. 앞서 言及했듯이 파생접사는 先行語基의 의미영역과 共起하게 된다. (20다)의 ‘사람구이’는 사람이 {人物}의 의미영역을 지니게 되어 파생어 ‘구이’와 共起할 수 없다. ‘하늘구이’도 ‘하늘’이 {事物}{空間物}의 의미영역을 가지므로 파생어 ‘구이’와 共起할 수 없다.

‘-이’의 의미영역은 ‘-이’에 의해서 파생된 실체명사가 문장 속의 意味構成要素로 참여하게 될 때, 文脈 속의 의미적 흐름에 따라서 그 意味領域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21) 가. 그 사람은 우리 여행의 길잡이다.

나. 그는 내 인생의 길잡이다.

同一한 파생명사지만 文脈의 흐름에 따라서 (21가)의 文意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으로 ‘-이’는 {人物}{有情物}의 의미영역을 지니고 있다. (21나)의 文意는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거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으로 ‘-이’는 {抽象}의 의미영역을 지닌다. 즉, (21가~나)의 ‘길잡이’는 각각 문장 속의 다른 의미구성요소와 의미적으로 共起하여 그 의미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22) 가. 저 사람은 고기잡이다.

나. 이 배는 고기잡이 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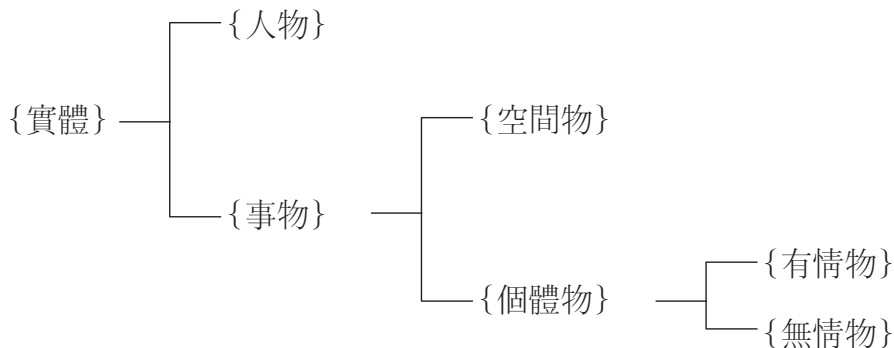
(22가,나)는 같은 ‘고기잡이’이지만 前者는 {人物}{有情物}, 後者는 {事物}{個體物}{無情物}로 나타난다. ‘-이’가 결합한 파생명사가 문장 의미구성요소로 참여하여 서로 다른 의미영역의 파생명사를 생산하고 있다.

(23) 가. 이 저고리는 옷걸이에 걸어 두어야 한다.

나. 그는 옷걸이(옷거리)가 참 좋다.³¹⁾

(23)은 {事物}{個體物}{無情物}, (23나)는 {人物}{有情物}이다. (23나)가 이러한 의미영역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장구성요소와 ‘사람’과 共起關係를 가지고 있다. 파생접사도 문장 속의 의미구성요소로 참여하여 全體 속의 部分의 의미를 共有하고 있다. ‘옷걸이’가 ‘N+V+-이’ 구성에서 ‘-이’의 의미영역이 {事物}{個體物}{無情物}을 갖기 때문에, 파생어 형성 단계에서 ‘옷걸이’가 {人物}의 의미영역을 가질 수 없는 것은 自明하다. 그렇다면 ‘옷걸이(옷거리)’가 {人物}의 의미영역을 獲得하게 되는 것은 문장 속의 文脈的 關係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이’의 의미영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4) ‘-이’의 意味領域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파생접사 ‘-이’는 실체 파생명사에서 {人物}{事物}, {有情物}{無情物}의 의미영역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이’의 意味領域은 語基와 派生接辭의 意味的 共起關係에 의해서 얻어지며 또한 前接된 語基 혹은 문장의 의미구성요소와의 公기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영역도 固定的

31)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호, 국어학회, p.120 참조. 현행 정서법에 따르면 (23나)의 ‘옷걸이’는 ‘옷거리’로 쓰는 것이 맞지만, ‘옷걸이’와의 의미적 연관성을 위해 ‘옷걸이(옷거리)’로 표기했다. 이 단어는 구본관(2002:120)에서 언급했듯이 ‘파생어가 만들어진 이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 않고 多樣的 意味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IV. 派生接辭 ‘-이’의 意味資質

‘-이’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의미영역은 ‘-이’가 單語의 意味資質 體系로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동사 ‘먹다’와 ‘먹이’의 의미자질 체계를 살펴보면,

(25) 가. 동사 ‘먹다’의 의미자질 : [+Event][+Action] [+Eat][+Animate]

나. 명사 ‘먹이’의 의미자질 : [+Entity][-Human][+Eat][-Animate]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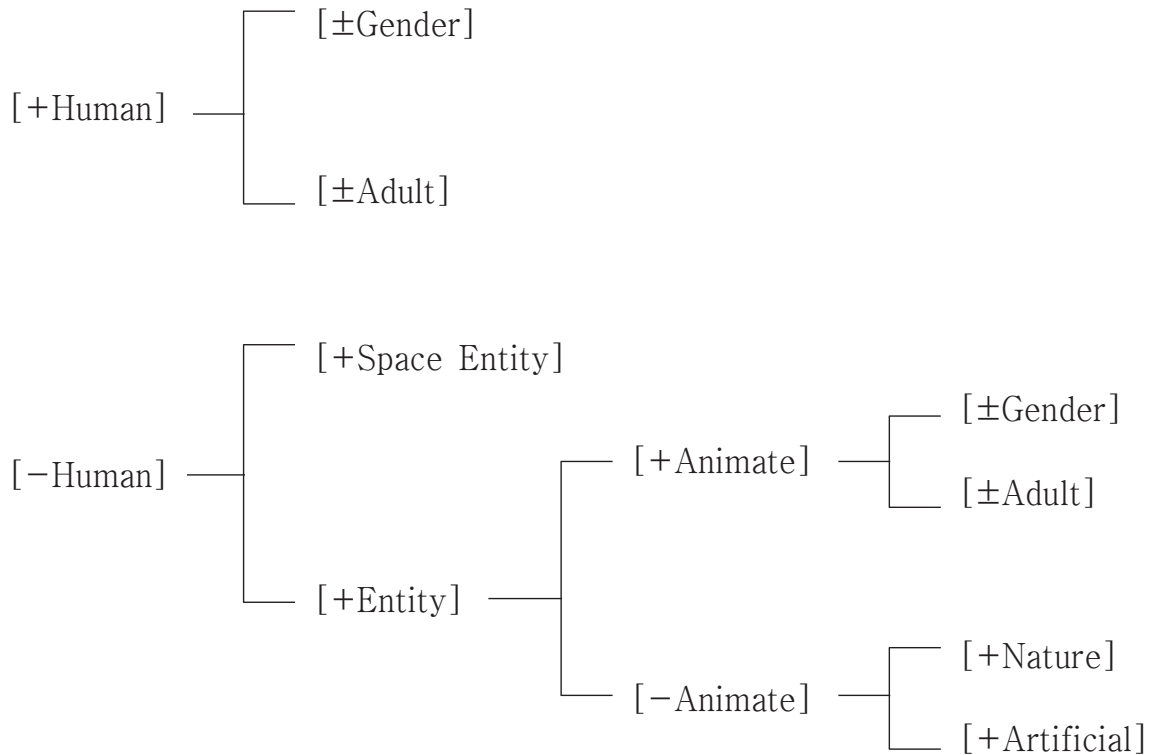
(25나)의 資質體系에서 [+Eat]만을 除外하면 ‘-이’의 자질체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실체 파생명사의 의미자질에서 매우 중요한 成分的 資質을 構成하고 있다.

실체명사는 特定한 個體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므로 內包概念과 外延概念을 가지고 있다. 내포개념은 주로 個體들의 屬性을 일컫고 외연개념은 개체들의 集合을 일컫는다. 앞서 ‘-이’의 의미영역의 下位分類를 보면 주로 개체들의 屬性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파생명사의 내포개념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既存의 실체명사의 의미자질 분석은 內包概念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질체계의 분석이다.³³⁾ 따라서 의미영역의 下位分類는 곧 내포적 의미자질을 분석하는 資質因子로서 活用이 가능하다. ‘-이’의 내포적 의미자질은 의미영역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은 成分分析表를 얻을 수 있다.

32) 문장의 意味構成要素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25나)는 [+Human]을 지닐 수 있다.

33) 김봉주(1988), 『개념학』, 한신문화사, p.58. “개념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외연의 분석이고 또 한 가지는 내포의 분석이다. 전자는 어떤 개념이 가지는 외연의 대상물들이 무엇이든 얼마나 되는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포의 분석은 의미론에서 소위 의미자질 분석에 해당되고 외연의 분석은 지시분석(이런 술어는 아직 없으며 해본 일도 없지만)에 해당된다.”고 했다.

(26) ‘-이’의 內包的 意味資質 體系



(26)의 내포적 의미자질 체계를 적용하여 (27가~바) ‘-이’의 內包的 意味資質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27) 가. 젓먹이

나. 생선구이

다. 복순이

라. 멍멍이

마. 똥똥이

바. 더듬이

(27가)의 ‘-이’의 의미자질은 [+Human][-Adult][±Gender]을 지니며, (27나)는 [-Human][+Entity][-Animate]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27다)의 ‘-이’는 固有 人名名詞에 결합하여 [+Human][±Adult][±Gender]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27라)의 ‘-이’는 동물 擬聲語에 결합하여[-Human][+Entity][+Animate]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27마)의 -이’는 사람의 外

樣을 나타내는 擬態語와 결합하여 [+Human][±Adult] [±Gender] 의미자질을 지닌다. (27바)의 ‘-이’는 [-Human][+Entity] [+Animate]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28) 가. 총잡이

나. 길잡이

다. 손잡이

同一한 ‘-잡이’ 파생형 실체명사의 경우도 그 의미영역의 차이에 따라 의미자질이 달라진다. (28가) ‘-이’의 의미자질은 [+Human][+Adult][±Gender], (28나) ‘-이’의 의미자질도 [+Human][±Adult] [±Gender], (28다)의 의미자질은 [-Human][+Entity][+Animate]로 나타난다. ‘-이’의 의미자질은 대개 先行 語基의 의미자질과 共起關係를 가지고 있다. 즉 ‘총잡이’로 파생되기 전의 동사 ‘총잡다’의 行動主는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이’가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손잡이’의 경우 동사 ‘손잡다’는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손잡이’의 ‘-이’는 [-Human]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것은 2차적으로 문장 속의 의미구성요소의 공기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9) 가. 저 사람은 고기잡이다.

나. 저 배는 고기잡이 배다.

(29가)의 ‘-이’의 의미자질은 [+Human][+Adult][±Gender], (29나)는 [-Human][+Entity][-Animate]이다. (29가)의 ‘-이’는 문장 속의 意味構成要素인 ‘사람’과 의미적으로 共起하고 있으며, (29나)의 ‘-이’는 ‘배’와 의미적으로 共起하고 있어 같은 ‘고기잡이’의 ‘-이’지만 각각 그 의미자질이 다르다.

(30) 가. 저 개는 순돌이다.

나. 저 사람은 순돌이다.

(30가) ‘-이’는 ‘개’와 共起하여 그 의미자질은 [-Human][+Entity][+Animate]로 나타나고, (24나) ‘-이’는 ‘사람’과 共起하여 그 의미자질은 [+Human][±Adult][+Man]이다.

그런데 ‘-이’의 어휘적 의미는 人物, 事物, 動物의 個體를 지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파생접사 ‘-이’에 대한 意味資質 模型은 보다 체계적이고 明細的인 資質模型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가 인물, 동물,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의 내포적 의미자질체계는 각각 다음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가. 人物 ‘-이’의 내포적 의미자질 체계: [+Human][±Adult][±Gender]

나. 動物 ‘-이’의 내포적 의미자질 체계: [-Human][+Entity][+Animate]

다. 事物 ‘-이’의 내포적 의미자질 체계: [-Human][+Entity][-Animate]

成分分析 方法에서 실체 파생명사의 共通次元은 ‘-이’의 의미자질로 나타나며, 視差特性은 語基의 의미로 나타난다.

(32) 가. 젓먹이 [+Human][-Adult][±Gender][+Eat][+Milk]

나. 꿀꿀이 [-Human][+Entity][+Animate][±Gender][+Eat][+Pig]

다. 소먹이 [-Human][+Entity][-Animate][+Eat][+Cow]

(32)예에서 실체 파생명사의 視差特性은 前接된 명사와 語基의 어휘적 의미자질로 분석된다.

한편 ‘-이’에 의해 파생된 실체명사는 대체로 개체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는 可算名詞이다. 실체명사는 個體들의 集合으로 보이는 外延概念을 갖는데, 이 외연개념도 外延的 意味資質로 분석된다. 외연적 의미자질은 語彙次元에서는 살필 수 없고 파생어가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구성요소와의 의미관계에 의해서 살필 수 있다. 외연적 의미자질은 각 문장 속에 나타나는 개체의 數量的 資質로 분석된다. ‘-이’의 외연적 의미자질이란 파생접사의 外延 指示體의 數量quantity을 辨別하는 자질체계다. 문장 속에서 敍述者가 普通名詞의 外延 指示體를 數量的으로 어떻게 認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질체계다. 數量資質은 문장 속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意味的 共起關係에 의해서 살필 수

있다. 어휘차원에서 ‘-이’는 외연개념이 數的 限界性を 가지지 않은 漠然한 個體로서 외연적 의미자질을 가지나 문장 속에서는 具體的인 數量體系를 알 수 있다.

(33) 가. 語彙次元 : 더듬이

나. 文章次元 : 이 곤충은 세 개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33가)는 ‘-이’의 외연이 개체들의 數量을 알 수 없는 觀念的 概念인데 비해 (33나) ‘-이’는 ‘세 개’라는 문장구성요소와 공기하여 세 개의 더듬이를 지시한다.

(34) 가. 이 멍멍이는 참 예쁘다.

나. 바둑무늬 멍멍이가 세 마리 있다.

다. 멍멍이들이 우리 안에 모여 있다.

라. 여러 마리의 멍멍이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마. 지진에서 멍멍이만 살아남았다.

바. 멍멍이는 개다.

문장에서 파생명사는 문장구성요소 중 數詞 혹은 數冠形詞와 같은 단어 및 指示語, 數詞, 冠詞, 複數接尾辭, 助辭 등 閉鎖部類 단어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때 파생명사의 외연 지시체가 單數인지 多數인가에 대한 의미자질을 분석³⁴⁾할 수 있다. (34가)는 指示語 ‘이’와 공기하여 특정한 개체를 지시하고, (34나)는 ‘다섯’이라는 數詞와 공기하여 다섯 마리의 개체를 지시하고, (34다)는 ‘우리’라는 단어와 공기하여 일정한 空間範疇 속에 들어간 개체들을 지시하고, (34라)는 공간범주는 막연하나 다수의 개체를 지시하고, (34마)는 조사 ‘만’과 共起하여 특정한 개체를 지시하고 (34바)는 막연한 개체를 지시한다. ‘-이’의 外延的 意味資質을 각각 [+Unit], [+Sum], [+Multi], [+Unity]³⁵⁾의 의미자질 체계로 살펴볼 수 있다. [+Unit]는 개체단위 자

34) 崔尙鎭(2010), 「普通名詞 外延의 意味成分 研究」, <語文研究> 148, p.25.

35) 崔尙鎭(2010), 앞의 論文, p.27.

질인자, [+Sum]은 일정한 공간범주에 들어가 있는多數의 개체자질인자, [+Multi]는 공간범주가 없는多數의 個體資質因子, [+Unity]는 막연한 개체자질인자로 표현된다. 이 외연적 자질체계를 (34)의 예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5) 가. [+Unit]

나. [+Unit3]

다. [+Sum][+Boundness]

라. [+Multi][-Boundness]

마. [+Unit]

바. [+Unity]

(35가) ‘-이’는 特定한 한 個體를 指示하므로 [+Unit], (35나)는 세 個體를 지시하므로 [+Unit3], (35다)는 일정한 空間範疇 속의 개체이므로 [+Sum][+Boundness], (35라)는 공간범주가 없는 개체들의 무리이므로 [+Multi][-Boundness] (35마)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지시하므로 [+Unit], (35바)는 막연한 수량의 觀念的 個體를 지시하므로 [+Unity]로 외연적 자질체계를 분류할 수 있다.

V. 結 論

이 研究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派生接辭 ‘-이’는 語基 혹은 文章의 意味構成要素로서의 結合 樣相에 따라서 多樣的 意味領域을 가지게 된다. 實體名詞를 派生시키는 -이’의 의미 영역은 {人物}과 {事物}로 大別된다. 여기서 {事物}은 다시 {空間物}과 {個體物}로 나눌 수 있으며 {個體物}은 {有情物}과 {無情物}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둘째, 派生어어의 의미형성은 1차적으로는 語基와 接辭의 相互간의 自己組織으로 이루어지고 派生어가 文章의 構成要素로 참여하면 2차적으로 文章 구성소와의 상호간 긴밀한 有機體的 自己組織 self-organiz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派生접사 ‘-이’의 意味資質은 內包的 意味資質과 外延的 意

味資質로 나누어 分析될 수 있다. 내포적 의미자질은 의미영역을 고려하여 분석될 수 있다.

人物 ‘-이’의 內包的 意味資質 體系는 [+Human][±Adult][±Gender]로, 動物 ‘-이’의 內포적 의미자질 체계는 [-Human][+Entity][+Animate]로, 事物 ‘-이’의 內포적 의미자질 체계 [-Human] [+Entity] [-Animate]로 분석된다. 外延的 意味資質은 파생어가 문장 속 구성요소로 쓰이고 있을 때 分析이 可能하다. ‘-이’의 外延적 의미자질을 각각 [+Unit], [+Sum], [+Multi], [+Unity]의 의미자질 체계로 살펴볼 수 있다. [+Unit]는 個體單位 資質因子, [+Sum]은 個體가 일정한 空間範疇에 들어가 있는 多數 資質因子, [+Multi]는 空間範疇가 없는 多數의 개체자질인자, [+Unity]는 막연한 개체자질인자로 表現된다.

앞으로 이 研究가 여러 派生接辭의 어휘적 의미의 내부 세계를 보다 明細 化해 볼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 高永根(1974), 『國語接尾辭의 研究』, 光文社.
- _____(1989), 『國語形態論研究』, 서울대 出版部.
- 구본관(2001), 「접미사 ‘-이’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_____(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국어학회, pp.105~135.
- 김봉주(1988), 『개념학』, 한신문화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 金鎭海(1997), 「國語 派生語의 意味形成에 대하여」, <어문연구> 96호,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pp.86~105.
- 金倉燮(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國語學> 12, 國語學會, pp.73~99.
- _____(1990), 「零派生과 意味轉移」, <周時經學報> 5, 탑출판사.
- 나은미(2004), 「접미사의 존재론적 의미 분류」,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

- 어의미학회, pp.75~95.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어우름), 한글학회, pp.367~400.
- 宋喆儀(1977),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pp.193~211.
- _____(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시정곤(1994), 「‘해돋이’와 ‘돈벌이’형의 단어형성」, <한국어학> 1, 한국어학회, pp.333~363.
- 이광호(2008), 「파생어와 그 의미의 도출」, <형태론>, 10권 1호, pp.35~50.
- 염선모(1984), 「의미의 성분분석에 대하여」, 『유창균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경북대, pp.377~391.
- 이관규(1986), 「어휘의미의 성분분석방법 -Nida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 고려대, pp.175~188.
- 이승명(1981), 「의미관계와 범주」, <한글> 173·174호, 한글학회, pp.545~558.
- 李奭周(1994), 『國語形態論』, 한샘.
- 이재인(1989), 「-이 명사의 형태론」,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임지룡(1990), 「의미의 성분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22, 경북대, pp.101~131.
- _____(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_____(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조일규(1993), 「국어이름씨 뒷가지의 변천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 차준경(2004), 「사건 명사의 의미 전이」,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pp.249~272.
- 천시권·김종택(1981),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 최경봉(1996), 「명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pp.11~45.
- 崔尙鎭(2008), 「實體名詞의 意味形質 分析」, <語文研究> 138, 韓國語文教育

- 연구會, pp.73~98.
- 崔尙鎭(2010), 「普通名詞 外延의 意味成分 研究」, <語文研究> 148,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7~34.
-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Aronoff, M.(1976), *Word-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Press.
-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임지룡, 윤희수 역(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출판부.
- Leech, G. N.(1981), *Semantics*, Harmondworth : Penguin.
- Lyons. J.(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öbner, S.(2002),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Matthews, P. H.(1974),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da, E. A.(1949), *Morphology*, Michigan University Press.
- Nida. E. 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항범 역(1991),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The MIT Press.
- Wierzbicka, A(1996),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E.(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MIT Press.

■ ABSTRACT

Analysis of the Semantic Components of Derivative Affix ‘-i(-o|)’

Choi, Sang-jin

This paper examines the lexical meaning which the derivative affix ‘(-o|)’ comes to have with word roots in semantic formation of derivative words, and further, how its semantic domain and semantic features can be analyzed. What is to be specifically analyzed are derivative substantial nouns for real things from which we are able to grasp their connotations and denotative concepts.

Depending on combinative aspects of word roots or sentences as semantic components, derivative affix ‘-o|’ comes to be able to cover a wide range of semantic domains. The semantic formation of derivative words consists, primarily, of the cooccurrence relation to arise between word roots and affix words; and, secondarily when affix words intervene as sentence components, it is constituted by a self-organization derived from its close interrelationship with sentence components. Semantic features of affix ‘-o|’ can be analyzed separately between their connotative and denotative dimensions. Connotative semantic features can be analyzed in view of its semantic domain, whereas denotative ones are possible to be analyzed when derivative words are used as sentence components.

※ Key-words : derivative affix, semantic domain, semantic feature, sentence components, self-organization, connotation